

지철 스님의 **도상**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그는 티베트 불교 수호자였다

청신사 리처드 기어 거사

처음 리처드 기어의 사진을 본 곳은 중부 유럽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의 크렘츠라는 교역도시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가 세계적으로 대 히트를 치고 있을 당시 리처드 기어 거사와 줄리아 모버츠가 함께 찍은 포스터가 여기 저기 붙어 있었다.

그리고 출가해서 승가대학에 재학 중일 때 달라이 라마의 대법회에 참석해서 티베트불교를 한 번 보려고 인도의 보드카야에 갔을 때이다. 그곳 식당에서 저녁공양을 하러 갔는데, 내가 앉은 자리에 리처드 기어 거사가 다가와 앉았다.

기어 거사에게 한국에 와 본 적이 있는가를 묻고, 티베트 승려들과 같은 짙은 갈색의 양복을 입었길래 양복이 멋있다고 칭찬을 하자 기어 거사는 똑같은 모양과 색깔의 양복을 일곱 벌 가지고 와서 매일 갈아입고 있노라고 대답했다.

10년 전 티베트에서 첫 만남

집 기부할 정도의 신심 돈보여

재가불자 역할 잊지 말아야

그 다음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본담은 황급히 밖으로 나갔고 그것이 기어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 후론 쪽쪽 웃고 지내다가 작년에 리처드 기어가 처음 한국으로 와서 '순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자신과 친구들이 찍은 사진전 시회를 갖는다는 것을 알았다.

불과 4박5일의 일정으로 조계사도 가고, 불국사도 가고, 또 본담이 거주하던 동화사도 온다고 해서 떠들썩한 분위기가 신문과 방송에 연일 나오고 있었다. 그러다 동화사 일정은 취소하고 기어와 그 부인과 아들이 출국했다는 소식을 인터넷으로 접했다.

10여년 전에 볼 때 보다 흰머리가 머리를 뒤덮은 리처드 기어의 모습은 좀 더 편안해 보이고 넉넉해 보였다. 어쨌든 작년에는 중징에하께서 미국에 처음으로 가서 법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기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당시는 동화사 주지 제 9교구 본사 교구장 성문 스님을 모시고 포교교장 소임을 살고 있었을 때였다. 스님을 모시고 미국 뉴욕에 먼저 들어가서 중정 스님 법회 예정 장소인 리버사이드 교회를 방문하고, 사전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 미국 갈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



리처드 기어의 티베트 성지순례 장면

항에 갔다.

공항 게이트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서있는데 리처드 기어가 서있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했더니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비행기에 타서 조종석 바로 뒤 10등석에 앉아있던 리처드 기어와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다.

10년 전에 보드카야 식당에서 만났던 것을 기억하느냐 했더니 웃으면서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나중에 뉴욕에서 자기에게 연락하려면, '킬 빌'의 여주인공인 우마 서먼의 아버지인 콜롬비아대학 티베트불교학과 교수인 서먼 교수에게 연락하면 된다고 다시 만나자고 했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 서먼 교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를 통해서 주로 리처드 기어가 연락을 받는다 했다. 어쨌든 티베트 불교 신자들이 이 양반들은 서로 티베트 불교의 발전과 보호를 위해 신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다가 10여년전에 리처드 기어가 왜 티베트 스님들과 똑같은 색깔의 양복을 7벌이나 준비해서 매일 갈아입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유명한 배우인 리처드 기어는 자신이 스님들보다 더 돋보여서 눈에 띄거나 스님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사부대중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맑은 믿음을 지닌 선비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리처드 기어는 최근 자신의 집을 팔아 티베트 불교 교단에 바치고 요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다시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불교에도 많은 리처드 기어와 같은 많은 청신사들이 있어서 대한불교조계종을 지켜 나가고 있다. 비구와 비구니 만으로는 사부대중을 이룰 수 없다. 부디 많은 청신사 청신녀들이 맑은 믿음으로 우리 불교를 지켜주시기를 기원한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병속에 담긴 연꽃은 꿈과 희망 전해

홍미림의 '세상 밖으로...'展

향수병·화장품병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이다. 이런 병 속에 연꽃이 하늘 거리며 인간의 꿈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전시가 있어 눈길을 끈다.

동양화가 홍미림 작가의 '세상 밖으로 희망을 내뿜다'전이 12월 5일~11일 종로구 인사동 선화랑에서 열린다. 홍 씨는 그림을 통해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자 했다. 그래서 잠시나마 복잡한 인간사를 잊고 이상향으로 향하는 마음을 화폭에 담아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연꽃과 동백 해달 구름 심장 등 자연적인 소재를 현대적 감각의 채색으로 그려냈다. "우리는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긍정적 생각보다는 부정적 생각을 많이 하기 마련이죠. 잠시나마 제 그림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제 전시의 목적입니다"

대중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것이 목적인만큼 작가는 밝은 색상을 통해 긍정성을 강조했다.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든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고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체념과 부정적 마음으로 살아가면 삶에 대한 이유와 의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모두가 꿈을 가지길 원한다는 뜻에서 좀더 밝은 색채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홍 씨의 그림은 형태색채 일색적인 색감과 리드미컬한 화면구성에 밝고 생동감 넘치는 기운이 느껴진다. 여기에 민화적 기법에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광고 이미지를 차용해 세련감 넘치는 작품을 펼쳐

낸다. 또 한국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먹채색을 기본으로 다채로운 색상을 표현하고 대상을 섬세하게 묘사해 새로운 한국화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향수병 안에 연꽃이 들어 있는 '꿈의 향기'는 눈길을 끈다. "광고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차용해 민화적 화법을 도입한 작품이에요. 여기서 연꽃은 희망의 결정체로 병 안에서 희망의 액체를 공급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하학적인 무늬를 이용해 주변을 장식하고 분홍색 끈은 소망이 술술 풀려나간다는 환상적이고 몽환적 느낌을 표현했어요. 이렇게 긍정적 기운을 담은 연꽃 병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연꽃은 특별한 의미를 지

밝고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로

긍정적 에너지 전달해 주고자

12월 5일~11일까지 선화랑서

는다. 맑고 깨끗하고 청아한 느낌의 꽃은 청정함 그 자체다. 그래서 첫 전시 때부터 연꽃은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어져 왔다. 그녀에게 연꽃은 꿈과 희망은 물론 우리네 인생사를 표현하는 훌륭한 매개체임에 분명했다. "왠지 연꽃에 끌렸어요. 여름이면 꽃을 피우고 겨울이면 저서 호수 위 연밭이 되어 떠 있는 그 모습은 생멸하는 우리네 삶을 보여주는 듯하잖아요. 그래서 연기저기 연꽃을 찾아다녔어요. 특히 시흥의 관곡지를 주로 많이 찾아가서 스케치를 했어요. 또 아는 언니를 따라서



홍미림 작가의 '세상 밖으로 희망을 내뿜다'전이 12월 5일~11일 종로구 인사동 선화랑에서 열린다. 홍 씨는 연꽃을 통해 세상의 희망과 꿈을 그려냈다.

충남아산에 위치한 인취사에서 연꽃도 구경하고 스님과 얘기도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죠."

이렇게 홍 씨는 연꽃을 스케치하는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한다. 연꽃에 묻혀 작업을 하다보면 연꽃과 내가 하나가 되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듯한 몰아일체의 경지를 맞본다고 한다. 그렇게 그녀는 연꽃 속에서 인간의 꿈과 이상을 화폭으로 그려낸다. 그것은 실제의 묘사이기도 하고 도형적 이미지이기도 하며 공간감을 장식하기도 한다. 그 모양과 크기와 배치가 어땠던

간에 그녀의 연꽃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해줄 것임에 분명하다.

앞으로도 꾸준히 연꽃을 그림 속에 그려 넣을 것이라고 말하는 홍미림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 동양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내외 개인전을 11회 가졌으며 제29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 2010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 최우수상, 제6회 평화예술제 대한민국 평화예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다. (02)734-045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월불 스님 달마도 초대전

수익금 전액 도서기금 회사

8일까지 동국대 중앙도서관서

달마도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월불 스님의 달마도 초대전이 12월 8일까지 동국대 중앙도서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스님은 전시의 수익금을 동국대 중앙도서관 도서기금으로 전액 기부해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회는 달마도 전시를 통해 불교문화 전파와 선수행의 대중적 확산 등을 위해 기획됐다. 동국대 측은 "전시회 작품 판매 수익금이 전액 동국대 중앙도서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서기금으로 기부된다. 동국대 중앙도서관은 불교종립대학으로서 국내 최대의 불교학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

다. 그런 만큼 스님의 기부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동국대 정각원장 범타 스님은 "수익금을 모두 동국대 중앙도서관 도서기금으로 회사해주시기로 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깨달음의 순간을 일필휘지로 그려내고 있는 월불 스님의 달마도 초대전에서 많은 분들이 월력 높은 구도자의 정신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월불 스님은 1952년 오대산 월정사 수도원에서 김지월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1955 경남 금강산 범어사 강원에서 하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경남 해안사 강원 수료, 경북 경산 선본사(팔공산 갖바위) 주지, 서울 영산 통도사 극락암 선원 등에서 수행 정진했다. 1983 고승선사화전 초대 출품했



월불 스님의 달마도

고 2012 조계종 조계사 어린이 청소년 포교기금 마련 불화초대전을 개최한 바 있다. 정혜숙 기자

문화재제자리찾기 일본 탐방

청소년·대학생 대상

12월 20일 접수마감

문화재제자리찾기가 일본 내 우리 문화재 탐방을 위한 청소년 대학생을 모집한다. 기간은 2013년 1월 10일~15일 5박6일 동안이며 일본 교토, 오사카, 나라 등의 문화유산을 탐방한다.

참가자들은 교토국립박물관, 나라국립박물관, 방문사, 동대서정창원, 백제신사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또한 일본 국회의원 특강, 현지 대학교수 해설 등도 같이 열린다. 참가 인원은 30명 이상이며 12월 20일 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 비용은 1인당 112만원이며 추후 기업 후원 등을 통해 참가비 50%는 반환 예정이다.

문화재제자리찾기 측은 "청소년들이 문화재들을 직접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전했다. (02)722-0914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쭈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귀사문석(貴蛇炆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 426호, 품목허가 제 09-651입니다.

방안의 습가마 찜질방(전자파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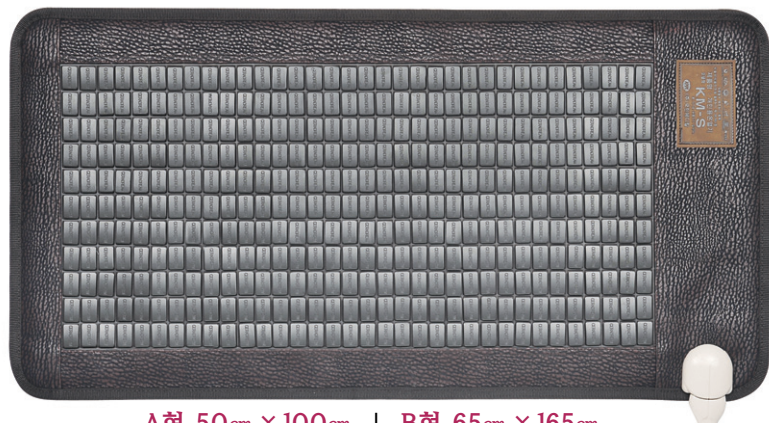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줍니다.

온열매트의 의학적 효과

건강한 사람의 평균 체온은 섭씨 36.5°C이다. 그런데 1°C만 내려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즉 냉증 또는 저체온이 되면,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줄어들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체온이 35°C로 내려가면 암세포가 증식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에선 매일 3천개~1만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면역력 덕분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 냉증(冷症) 즉 저체온이 되면, 그 증상으로 손과 발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다.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로 고생도 한다. 또한 당뇨, 지방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자구를 세바퀴나 돌 수 있는 9만km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적혈구가 영기는 현상은 저체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세포 안에 충분히 열이 전달되도록 하면 적혈구의 영기현상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원적외선을 이용해 신체 내부까지 골고루 열을 가하면 즉시 영기 있던 적혈구들이 원상회복 된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수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 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맥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A형 50cm x 100cm | B형 65cm x 165cm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인간의 기본 체온은 36.5°C인데 1°C 떨어지면 **저체온(冷氣)**이 되어 **면역력이 30%** 된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습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 ※ **두한족열(頭寒足熱)** : 머리는 차갑게 (귀사문석 베개) 발은 따뜻하게 (귀사문석 온열매트)
- ※ **낮에는 의자나 쇼파에, 밤에는 침대나 요 위에 놓고 하루 24시간 찜질!**

- 제조원 : (주)국민메티컬 / 경기 양주시 울정동 115번지
- 판매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305-50
- 문의전화 : **02)2681-8122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x 세로 32cm x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x 세로 32cm x 높이(뒷면) 6cm]

기상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물상!**

02)2004-8216

농협 063-014-268092 (주)현대불교신문사